

내향적인 영혼들은 끊임없이 요그육트하고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오늘 암릿 벨라에 밥다다는 특히 한결같이 협조적이고, 끊임없이 힘의 화신이며, 변함없이 해방되어 요그육트한 그의 특별한 자녀들을 보고 있었다. 너희 자녀들 각자에게서 밥다다는 두 가지 특질을 보았다. 첫 번째로 바바는 너희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살펴봤다. 두 번째로 바바는 너희가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해방되었는지 보았다. 삶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요그육트하다는 뜻이다. 너희 자녀들의 마음속 생각의 선 하나하나가 매 초마다 밥다다에게는 아주 뚜렷이 보인다. 이 선들을 보면 밥다다는 미소지었고, 너희 자녀들의 특별한 이미지 안에 보이는 두 가지 특질을 보았다.

하나는 “한결같은 내향성”으로 그것을 통해 너희는 끊임없이 행복의 대양에 잠겨있을 수 있고 또 너희의 생각과 행복의 과동, 태도, 말, 관계, 연결로 남들 역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외향성”이었다. 외향적일 때 너희는 끊임없이 거친 느낌으로, 즉 너희의 과동, 생각, 말, 연결뿐 아니라 남들의 느낌과 동기로도 남들을 낭비적인 쪽으로 이끈다. 그것은 너희가 오직 일시적인 것들만 가져다주는 달콤한 과자를 끊임없이 먹고 남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먹인다는 뜻이다. 그런 자녀들은 항상 이런저런 유형의 생각에 사로잡혀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 행복, 힘은 늘 너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너희는 가끔 어쩌다 그것을 언뜻 경험할 따름이다. 바바는 그렇게 외향적인 자녀들을 보았다.

곧 디파왈리가 다가오고 있다. 사업가들은 이때에 회계장부를 체크하며 미필계정과 신규계정을 조사한다. 아버지는 무엇을 살펴보겠느냐? 아버지는 너희가 미필계정들을 어느 정도로나 끝냈고 새로운 계정에 얼마만큼 축적했는지, 너희들의 계정을 조사했다. 그러므로 오늘 바바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브라마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어제였기 때문이다. (개관식입니다.) 너희들은 개관식을 위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개관식 행사에 초대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너희는 뭘 하느냐? 그것에 너희는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느냐? 리본으로 묶었던 꽃을 엮어서 화환을 걸었든, 개관을 하려면 너희는 그것을 가위로 자른다. 너희는 가위를 어디에 두느냐? 꽃으로 가득한 쟁반 위에 가위를 놔둔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너희는 신성한 미덕들의 꽃으로 너희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굴레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개관식 준비는 뭘 수반하느냐? 한편으로 너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너희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외향성이라는 모든 굴레에서 너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너희 자신을 이 정도로 준비했느냐? 외향성의 달콤함이 너희를 바깥으로 무척 유인하므로 그래서 너희는 가위를 쓴다. 이 달콤함은 너희의 목적지인 성공에서 너희를 떼어놓는 미묘한 굴레가 된다. 칭송은 있을지 몰라도, 계시나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지금 개관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밥다다의 정원에서 꽃의 향기와 꽃들의 특질이라는 향내를 맡으며 끊임없이 바쁠 것이다. 너희의 삶이라는 쟁반에는 꽃 말고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정도로 준비되었느냐? 이것에서 누가 첫 등수를 차지하려느냐? 마두반에서 온 자들이냐, 멜리에서 온 자들이냐? 너희는 대단한 지위를 받을 것이다. 밥다다와 함께 뭔가 개관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행운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와 대등한 영혼들만이 아버지와 함께 이 개관식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뭔가를 개관한다는 것이 영원히 영혼세계나 서틀 리전의 주민이 된다는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모든 이가 다 비물질세계에서 아버지 브라마와 함께 살겠느냐, 오직 소수만이 그려겠느냐?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 봉사장소를 떠나 바바와 함께 돌아가겠느냐? 바바와 함께 가려느냐, 뒤에 남겠느냐? (바바와 함께 가겠습니다.) 앗챠, 아버지 브라마는 이미 서틀 리전에 가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째서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럼 이제는 너희가 뭘 하려느냐? (다디에게 말씀하심.) (저희는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앗챠, 다디와 디디, 둘 다 같이 가겠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은 독특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주된 것을 꼽아보면, 너희가 개관식 준비를 다 했는지? 멜리 출신들은 준비되어 있는지? 등이다. 도구 봉사자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뭔가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 (저희들은 합류시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밥다다가 가고 난 후에도 너희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얼마나 더 오랫동안 여기 머물기를 원하느냐? 바바와 같이 갈 자들은 다람라지에게 “타 타” (안녕, 바이바이)라 말할 것이며 그들은 다람라지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

을 것이다. 앗챠. 아버지는 너희들의 회계장부가 깨끗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 외향성의 계정, 즉 낡은 계정(미필계정)은 생각이나 산스카르의 형태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요그육트하고 일체의 굴레에서 자유로이 머물러라. 바바는 올해 너희가 외향성의 이 분위기를 끝내도록 특별한 신호를 주고 있다. 봉사하고 또 더 많이 봉사하되, 외향적이 되지 말고 내향적이 되어서 봉사해라. 너희가 내향적이 되면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봉사하면서 너희는 매우 외향적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좋은 봉사를 하고 있으며 봉사를 많이 한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바바가 보기에는, 모든 이가 “그들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다. 그는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계시라는 면에서는 성공이 거의 없다. 너희가 외향적일 때의 결과를 얘기해주었다. 그들이 너희를 칭찬할지도, 그들이 완전히 만족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은 완전히 만족된다는 뜻이다.

한결같이 내향적이며 변함없이 완전하게 만족되어 있고 다른 영혼들을 항상 완전히 만족시키는 자들에게, 모든 미덕들로 한결같이 완전하고 아버지와 대등한 자들에게, 행복의 대양 속에 끊임없이 잠겨 있는 자들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며 사랑에 끊임없이 심취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델리 지구에서 온 자들을 만나심.

밥다다는 드라마에 따라서 자녀들 모두를 대단히 사랑하고, 밥다다는 너희의 특질을 기준으로 특별히 너희들을 모두 선택해서 이 브라민 가족의 꽃다발에 집어넣었다. 너희는 살아 있는 꽃들의 꽃다발이다. 꽃에는 각기 그 고유한 특질, 모양, 색깔이 있다. 어떤 꽃들은 다른 꽃들보다 더욱 향기롭다. 몇몇 꽃의 아름다움과 색깔로 인해 꽃다발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만일 꽃다발을 두 개 만드는데, 하나는 장미꽃으로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장미와 다른 갖가지 꽃들을 섞어서 만든다면, 어느 쪽이 더 아름답겠느냐? 너희들에게도 역시 다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미가 가운데 놓이고 다른 여러 가지 꽃들은 장미 주위를 장식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봐라. 너희들은 각자 제 자신을 안다. 너희는 밥다다의 무한한 꽃다발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데,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꽃다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여기 마두반에 왔다.

델리에 있는 판다브 바반의 판다바들은 뭘 하고 있느냐? 판다바들의 기념비에 대한 언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판다바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판다브 바반은 마두반 바로 옆이다. 그러니 판다브 바반의 주민들은 어떤 봉사를 계획하고 있느냐? 모든 이의 시선이 판다브 바반으로 끌릴, 그런 봉사를 해라.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다, 라면서. 너희는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세계 전체의 모든 장소를 다 통틀어도 판다브 바반은 특별한 바반이다. 너희에게는 VIP용의 특별장소가 있고, 너희에게 VIP를 위한 장소가 있으니 너희는 VIP를 위한 봉사도 역시 해야 한다. 델리는 VIP들의 장소다. 그것이 VIP들의 장소이니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는 아주 뛰어난 마하비르이고 또 VIP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젠 무엇을 하려느냐? 나날의 일정표를 정해라. 마두반을 봐라! 할 일이 많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것에서 전반적으로 다 성공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의 이 일정표를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할 일은 늘고 있지만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그들은 그저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의 하루 계획을 정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예사로운 영혼들이 아니라 책임을 맡은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계 시혜자 영혼들이다. 더 중요한 사람일 수록 일상적인 활동들이 미리미리 정해질 것이다. 누군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시는 정확성이다. 정확해지는 방법은 매일의 일과표를 짜두는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열 명의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정해놓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저축한다. 이 때문에 겨우 한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열 가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앗챠, 너희는 끊임없이 만족스러워하는 영혼들 아니냐? 한결같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충족되어 있다는 뜻이다. 너희와 아버지는 결합되어 있으니, 이 결합된 힘은 참으로 크다. 겨우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팔을 천 개 가진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2. 너희들 모두 쉬운 요기들이지?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은 쉬운 요기가 된다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 외에 아버지에게 달리 누가 있느냐?

너희에게 비록 어머니가 있어도, 너희들의 성취의 토대는 아버지다.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너희가 제 어머니를 기억하지만, 성취라는 면에서는 너희들 각자 아버지를 기억한다. 너희가 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거나, 너희의 의식적인 바람에 반해서 한 분 뿐인 아버지 외의 누군가를 보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해라. 그러므로 이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은 쉬운 요기가 된다는 뜻이다. 앗차. 옴 산티.

3. 쉬운 노력가이며 쉬운 요기인 자녀들을 나타내는 주된 표시.

- 1) 쉬운 노력가라는 것은 날마다니는 단계로 히말라야만큼 큰 문제들을 1초에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성취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 2) 현재의 때와 미래에 보상을 얻는 경험을 가진 자들은 마치 육안으로 물체를 보고 있는 듯이 뚜렷하게 그들 앞에서 보상을 볼 것이다.
- 3) 쉬운 노력가는 매 발걸음마다 수백만 이상의 큰 수입을 벼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힘, 어떤 미덕의 보물, 지식의 요점, 행복, 도취감 중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가 결코 없을 것이다.
- 4) 쉬운 노력가는 길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동안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그는 길이 굽었다거나 평평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도 결코 없고 발목을 빼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안내인이 되어 길을 쉽게 건너고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5) 그런 영혼들은 그저 사랑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잠겨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합쳐진다는 뜻이다. 합쳐진다는 것은 대등해진다는 뜻이다. 그런 영혼들은 주변의 온사방의 파동이나 분위기에서 멀찍이 떨어져 지내기가 쉬울 것이다.
- 6) 쉬운 노력가는 결코 부주의할 수가 없다. 매 순간마다 그들은 아버지의 동반을 경험할 것이다. 오직 그런 노력가들만이 쉬운 요기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쉬운 노력이란 부주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질문: 힘의 화신인 너희 영혼들은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대답: 굽은 길을 반듯하게 편다는 것은 철시대를 황금시대로 바꾼다는 뜻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계약이다. 너희는, 길이 굽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발목을 빼는 것은 주의 결핍을 나타낸다.

질문: 브라민들의 언어에 포함될 수 없는 말은 어떤 말이냐?

대답: “이 일은 나의 의식적인 바람에 반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다. 이런 것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인 영혼들의 말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바라는 것과 너희의 행동이 다르다면 너희는 쉬브 샥티라고 불릴 수 없다. 쉬브 샥티는 의존하는 자가 아닌, 권리를 지닌 자라는 의미다. 의존의 말은 브라민들의 말이 아니다.

질문: 아버지를 기억하는 깊은 사랑은 어떻게 불처럼 작용하느냐?

대답: 너희가 뭔가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의 이름, 형태, 질이 모두 변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깊은 기억 속에 집어넣으면 너희들 역시 변하게 된다. 인간에서 너희는 브라민으로 변하고, 그 다음엔 브라민에서 천사로, 그 다음엔 신인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랑의 불로 변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너희 인간들은 더 이상 인간 존재가 아니며 너희는 천사가 된다. 마치 진흙을 벽돌에 집어넣어서 벽돌로 만들기 위해 용광로 안에서 굽는 것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너희도 역시 변화한다.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기억은 화산 같다고 일컬어진다. 화산은 매우 유명하다. 그러므로 화산 같은 너희 신인들도 역시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앗차.

축 복: 영혼의식이 되어 악덕 없는 단계를 경험해라, 즉 천사의 모습이 되어라.

영혼의식이 되는 자녀들은 쉽게 악덕 없게 된다. 영혼의식의 단계를 가지면 너희는 마음속으로도 악덕 없는 단계를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악덕 없는 자들, 그 어떤 유형의 불순함이나 5원소의 유인에도 끌리지 않는 자들은 천사라고 불린다. 이를 위해서는 육신의 형태 안에 있으면서도 무체의 영혼의식 단계에 안정해 머물러라.

슬로건: 삶속에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히 암릿 벨라에 홀로 있음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